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5>
(修習止觀坐禪法要)

證果 第十①

미혹과 깨달음은 두 마음 없어

若行者如是修止觀時 能了知一切諸法皆由心生 因緣虛假不實故空 以知空故 即不得一切諸法名字相則體真止也

지금까지 서술했던 아홉 장 가운데 제1장부터 5장까지는 방편인 보조수행이었고 제6장부터 9장까지는 정수행이었다.

이미 정수행과 보조수행이 진실한 수행인지(因地)가 되었다면 반드시 증득하는 깨달음의 과보(實覺)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마지막 제10장 증과장(證果章)에서는 깨달음의 과보를 증득한 것에 대해 밝히려 하고 있다.

중생들은 미혹한 이래로 홀연히 천당에 태어났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은 털끝만큼도 감소하지 않고, 시방제불은 경각을 성취했다 해도 마음은 실오라기만큼도 증가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의 미혹한 마음에서 증득한 것이며, 중생은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미혹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혹과 깨달음의 자체는 동일하고 인과 과가 두 모습이 아니라 는 점이 분명하다. 즉 중생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생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가 이상에서 설명했던 정수행과 조수행을 할 때 일체제법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모든 법은 세간의 육도법부와 출세간의 성문, 연가, 보살,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법을 자세히 분석하면 미혹한 법, 깨달은 법, 번뇌업법, 번뇌를 떠나 청정한 법, 생사유루법, 열반무루법, 방편교, 실교, 대승교, 소승교, 편교, 원교, 돈교, 점교 등 한양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일심에서 환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법은 일심을 따라서 조각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제법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 분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며 심법계와 세계미진이 마음을 자체로 해서 성립했다”고 하였으며 “시방 허공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마치 뜬구름이 허공에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내 마음이 세계 허공을 포괄하여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화엄경에서는 “내 마음은 솜씨 좋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오묘를 조각하듯 우리의 마음이 일체 세간법을 조각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현재 일념 분별심은 십법계의 오묘를 조각한다. 이는 마치 화가가 붓으로 갖가지 색을 칠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갖가지 오묘 내 마음을 따라서 조각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한 생각 있다는 집착심이 일어나면 육도법부 중생의 오묘가 일어나고, 공이 있다는 집착을 일으키면 이승이 일어나고, 대비심을 일으켜 자리아타행을 병진하면 보살이 되고,

남이 없다. 이것은 단지 경계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마음이 일어남이 없다면 육진경계가 공적하고 육진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육근도 공적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허망한 거짓 인연법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가 공적하다”고 말하였다.

경계와 마음이 본래 공적하다면 무엇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이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일체 모든 법은 인과 연이 화합하여 허망한 거짓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인과 경계의 연, 경계의 인과 마음의 연이 분리된다면 제법이라는 허망한

명칭과 모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문제를 유식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성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최초로 일으키는 일념 불각은 인이 되고 그 인이 변화한 것은 연이 된다. 그러므로 옛날 큰스님은 “내적으로 우리의 몸과 밖으로 세계가 허깨비처럼 나타나 실제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내 마음 망상의 인과 연이 화합해서 나타난 모습을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체제법은 이미 내 마음의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따라서 제법은 있다 해도 실제 있지 않는 것을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타기성은 자성이 본래 없어 그 자체가 공적인 일심일 뿐 내 마음밖에 실재하는 법은 없는 그 자체를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제법에 대해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그것을 제법의 진실한 자체를 체득하고 망상을 그쳤다 하여 체진지(體眞止)라고 한다.

체진지를 통해서 변계소집성은 본래 공적하고 의타기성은 있다 해도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한다면 사물 그 자체가 바로 원성실성이 된다.

가령 육도법부에서 모든 법의 명칭과 모습을 얻지 못하여 삼계내의 견사혹(見思惑)을 일으키지 않으면 체진지이고, 소승의 제법과 명칭을 얻지 못하여 진사혹(塵沙惑)을 일으키지 않으면 방편수연지(方便隨緣止)이고, 보살이 거처하는 실보장엄토의 명칭과 모습을 얻지 못하여 근본무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이다. 이것을 삼지(三止)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타임즈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한테스지관)와 호법유사의 비만사서> 새로운 유식학의 집권자인 유식학의 신유식학 타임즈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중생마음이 부처마음이고 부처마음이 중생마음 십법계와 세계미진은 마음을 자체로 해서 성립

동체대비심을 일으켜 일체중생이 본래 평등하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님 법계를 이룬다. 따라서 출세간 사성과 세간의 육도법부가 우리의 일심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일어나면 십법계 인과의 모든 법이 완전하게 건립되고, 일념 분별심이 소멸하면 십법계의 모든 법이 그 자리에서 공적해진다.

경전에서는 “삼계는 따로의 법이 없고 우리 일심 분별을 따라서 조각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일체제법이 일심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법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해도 마음은 또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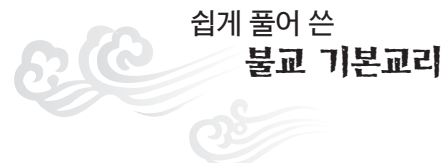
대상경계는 일어나는 원인이 본래 없고 마음도 경계가 없다면 제법도 마음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 경계는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내 마음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경계는 본래 일어남이 없고 마음도 본래 일어

명칭이 소멸하여 일어났 것은 인과 연이 일어났을 뿐이며 소멸하는 것도 인과 연이 소멸하였을 뿐이다.

허깨비와 같은 인과 연은 일어났다 소멸할 뿐 모든 법의 본체는 본래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제법과 마음은 본래 얻을 것도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본래 청정하여 모든 육진경계의 오염을 떠나 내적으로 내 몸과 외적으로 세계를 철저하게 관조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안으로 육근은 제팔아뢰아식에서 일어난 분별심이며 밖으로 산하대지는 제팔아뢰아식이 변화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제팔아뢰아식에서 일어난 분별의 마음과 산하대지의 모습은 본래 따로의 자체가 없고 단지 제팔식을 자체로 삼을 뿐이다.

이를 두고 육근은 마음이고, 마음에 비친 제법은 육진이어서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에 물은 때와 같다. 거울의 때가 지워질 때 광채가 스스로 나타나듯 마음과 제법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잃는다면 마음의 자체는 즉시 진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일체 제법의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1) 자량위(自量位)

유식론(唯識論)에서는 보살의 수행위차를 자량위(自量位), 가행위(加行位), 통달위(通達位), 수습위(修習位), 구경위(究竟位) 등 오위(五位)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량위는 대승순해탈분(大乘順解脫分)에 해당됩니다. 순종한다는 의미인 ‘순(順)’은 수순해탈하여 미혹의 이장(惑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종자(因)의 의미인 ‘분’은 혹장(惑障)에 떨어지지 않는 해탈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이익이 될 수행양식(量)을 근본바탕(資)으로 해야만 끝내 보리과위에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량(量)’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맹세코 이루어라고 발심은 하였으나 그 발심을 충족시킬 수행이 ‘순결택분(順決擇分)’에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태는 모두 자량위에 포함됩니다.

대보리심은 무망(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의 삼선근(三善根)을 자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심오하고 견고한 마음이 바로 대보리심인데, 그 보리심은 담연한 명각(明覺)이어서 그 어떤 여타의 유혹에도 동요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심오 견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유식론에서는 “자량위 보살은 능취심(能取心)과 소취경(所取境)이 공적한 이치임을 명료하게 통달하지 못한다”고 하였었습니다. 때문에 이 보살은 능취심, 소취경의 이취습기(二取習氣)를 조복받거나 소멸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 관점을 아직은 잊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부연해 본다면 우리의 허망한 분별식으로 집착하는 객관경계가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소취공(所取空), 즉 대상이 본래 공성임을 명료하게 통달하지 못함이라 하고, 대상경계를 집착하는 주관적인 분별망식이 공적하지 못하는 것을 능취공(能取空), 즉 주관분별마저 공성임을 명료하게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습기는 활동세력인 종자의 다른 명칭이며 ‘능취’는 집착하는 주제적인 망심이고 ‘소취’는 집착하는 대상의 경계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이장번뇌 가운데서 후천적인 분별아집으로 일어난 경멸적 번뇌는 견도위(見道位)에서 끊어지고, 선현적인 구생아집(俱生我執)에서 일어난 번뇌는 수도위(修道位)에서 단계적으로 끊어집니다.

이장번뇌 가운데서 후천경멸적인 분별아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비량지(比量知)로서 번뇌를 조복받을 수는 있으나 선현적인 잠재의식 속의 미세한 구생아집의 변화활동과 그 종자세력에 있어서 이 둘 모두를 제거해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지관(止觀) 수행력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리=張如舟

삶의 고통 속에 존재감마저 상실했을지언정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벽 여명의 절 마당을 쓸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산속의 스님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날이 멀지 않음을 설파한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오늘도
물결 무늬를
쓸면서

중현 스님의 산사에서 보내온 청량한 법문 편지

중현 지음 / 255쪽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부디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인기획 (051)866-7818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교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